

축구대표팀, 콜롬비아·우루과이와 올해 첫 A매치가 한 달 앞인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새 감독 선임 프로젝트



호세 보르달라스

출생 : 스페인
나이 : 59세
경력 : 발렌시아CF 감독(2021~2022)

치치

출생 : 브라질
나이 : 62세
경력 : 브라질대표팀 감독(2016~2022)

바히드 할릴호지치

출생 : 유고슬라비아
나이 : 71세
경력 : 모로코대표팀 감독(2019~2022)

로베르트 모레노

출생 : 스페인
나이 : 46세
경력 : 그라나다CF 감독(2021~2022), 스페인대표팀 감독(2019~2019)

라파엘 베니테스

출생 : 스페인
나이 : 63세
경력 : 에버턴FC(잉글랜드) 감독(2021~2022), 첼시FC(2012~2013)

5명의 후보와 접촉 상황은 포착됐지만 치치·할릴호지치외엔 대표팀 경력 일천 필러 위원장이 밝힌 기준에도 부적합 전력강화 위원들 “정보 공유조차 안돼” 축구인들 “대표팀 이끌어온 인물 뽑아야”

2023년 첫 A매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축구국가대표팀은 3월 2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콜롬비아,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차례로 격돌한다. 특히 우루과이는 2022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0-0 무)에서 격돌한 상대라 관심이 더 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다. 2018년 8월부터 카타르월드컵까지 A대표팀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의 후임자를 뽑는 일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마이클 필러 전력강화위원장(독일)에게 ‘포스트 벤투’ 선임 프로젝트를 맡겼다. 일단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은 포착됐다. 외신 등을 통해 여러 지도자들이 거론됐다.

호세 보르달라스 전 발렌시아 감독(스페인)을 시작

으로 치치 전 브라질대표팀 감독(브라질), 바히드 할릴호지치 전 모로코 감독(모로코), 로베르트 모레노 전 그라나다 감독(스페인), 라파엘 베니테스 전 에버턴 감독(스페인) 등이 후보군에 등장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모른다. 에이전트가 ‘의향’을 물어본 것을 ‘접촉’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실망스럽다. 필러 위원장이 앞서 공개한 5가지 선임기준(전문성·경력·동기부여·팀워크·환경)에 맞는 인물이 거의 없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은 클럽 커리어가 대부분이거나 대표팀을 짧게 경험했다. 치치 감독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잡음을 일으킨 할릴호지치 감독 정도만 팬층은 대표팀 지도 이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200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의 역전 우승을 이끌어 명장 반열에 오른 베니테스 감독조차 대표팀을 이끈 적이 없다.

긴 시간을 치르는 클럽과 특정 대회 또는 A매치 때 짧게 소집돼 손발에 맞추는 대표팀의 환경은 전혀 다르다. 많은 축구인들은 “대표팀은 장기 프로젝트라 해도 선수들과 호흡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명확한 철학과 컬러 등을 오랜 시간 함께하며 공유하

는 클럽과 다르다. 대표팀을 꾸준히 이끈 지도자가 최고의 선수들을 이끄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시스템 중립’이다. 필러 위원장은 “속도만 내지 않고 확실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선임작업의 기본인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력강화위원들과 대화도 없다. 한두 차례 미팅에서 자신이 취임화전 당시 밝힌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임 기준부터 후보군 선정 등 모든 과정을 위원회 전원이 공유하며 벤투 감독을 영입한 과거와는 판이하다.

‘필러 위원회’ 위원들은 감독 후보와 접촉 등 구체적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안팎에서 “‘보여주기 쇼’ 위원회를 위한 보릿자루”, “투명성을 위해 투명인간이 됐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후보와 유리한 협상을 위해선 보안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 배를 탄 식구조차 믿지 못해 소통하지 않았다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공유할 내용조차 없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 전력강화위원회의 사정을 아는 한 축구인의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말에서 불편한 ‘파열음’이 감지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영화가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전선규 주연의 ‘카운트’와 조진웅·이성민이 주연한 ‘대외비’(왼쪽부터)가 외화의 강세에 선전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사진제공 | CJ ENM·블루스영 엔터테인먼트

겨울잠 깬 한국영화
봄 극장가 상륙작전

오늘 ‘카운트’ 시작, ‘대외비’ ‘멍멍이’ 잇따라 개봉
스크린 양극화 줄이려면 중·소규모 영화 흥행 중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을 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마블스튜디오의 ‘앤트맨과 와스프’ 등 외화가 박스오피스 1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한국영화가 석 달째 침체에 빠졌다. 외화의 득세 속에 제작비 100억 원 이내의 크기 않은 규모로 탄탄한 내실을 갖춘 한국영화와 승기를 되찾기 위해 봄 극장가를 공략한다.

●휴먼코미디부터 로맨스까지

22일 개봉하는 ‘카운트’가 선봉에 섰다. 50억 원으로 제작된 영화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박시현 선수의 일화를 모티브로 복싱 선수 출신의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교내 복싱부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 휴먼 코미디이다. ‘범죄도시’, ‘극한직업’ 등에서 신스타일로 활약한 전선규가 단독 주연으로 나선다.

3월 1일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편이 나란히 개봉한다. ‘대외비’와 ‘멍멍이’.

이성민과 조진웅이 주연한 ‘대외비’는 만년 국회의원 과 정치판의 숨을 실세 등의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그리고, ‘멍멍이’는 반려견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유언석과 차태현이 사촌형제로 나서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다. 각각 약 100억 원, 50억 원의 제작비로 만들었다.

2주 후인 15일 2017년 중국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리메이크한 ‘소울메이트’가 극장에 걸린다. 김다미·전소니, 변우석이 그리는 우정과 사랑에 대한 아련한 로맨스 영화다.

●허리급 영화의 활약 기대

외화의 스크린 장악이 장기화하면서 각 작품의 흥행 여부에 영화계와 극장가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위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대니아’를 포함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 ‘타이타닉’, ‘아바타: 물의 길’, ‘어메이징 모리스’ 등 박스오피스 5위권을 모두 외화가 차지했다. 특히 유해진·류준열이 주연한 ‘올빼미’가 1위에 오른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한국영화는 단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블록버스터 영화와 저예산 독립영화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100억 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허리급’ 영화의 흥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갑염증 사태 이후 영화산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간급 영화 투자가 더욱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중소 규모의 영화의 선전으로 한국영화계의 다양성을 넓혀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전립선 건강은 기본!
비오틴까지
풍성하게!
전립소 쏘팔메토 블랙



전립소 전속모델 이정웅

●저온 초임계 추출 프리미엄 쏘팔메토

·미국 플로리다산 고품질 쏘팔메토 100% 사용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저온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잔류물질 걱정 없이 안심

●비오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배의 풍성한 고품량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프랑스 DSM사의 프리미엄 비오틴 300ug 함유
·비오틴 1일 섭취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의 풍성한 고품량

●남자를 위한 7종 기능성 원료

- 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 ②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오틴
- ③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를 위한 비타민 B1
- ④ 체내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 B2
- ⑤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 ⑥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2
- ⑦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나의 건강, 더 강력하게 리턴업
Returnup

4개월분 구매 시
2개월분 추가 증정

건강기능식품
전립소 쏘팔메토 블랙 (주)노바비스 2공장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매장 · 씨제이웰케어(주)

CJ웰케어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